

人文論叢

83권 3호

2026년 8월

서평

역자가 읽은 『케임브리지 몽골 제국사』

조원희*

[서평] 미할 비란·김호동 편,
조원희·최소영·김석환 역(2026),
『케임브리지 몽골 제국사』 전3권, 사계절,
670쪽(제1권), 431쪽(제2권), 379쪽(제3권)

1. 원저에서 한국어 번역본으로

『인문논총』 편집위원회로부터 번역자로 참여한 『케임브리지 몽골 제국사』의 서평을 청탁받았을 때, 조금은 어색함을 느꼈다. 서평이라는 글쓰기에는 저작의 논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에서부터 특정 연구사적 맥락 속에 그 책을 배치하는 것, 나아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저작을 학계에 소개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층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두더라도 역자가 직접 서평을 작성하는 것은 흔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만 편집위원회는 이 글이 비평보다는 한국 학계에 대한 소개로서 더 큰 의의를 지니리라는 점을 청탁 당시에 밝혀 주었고, 그러한 취지라면 역자인 서평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았다.

한글 번역본 『케임브리지 몽골 제국사』는 총 3권으로 간행되었다. 번역 또한 세 사람이 나누어 맡았는데, 서평자가 담당한 것은 그 가운데 『케임브리지 몽골 제국사. 제1권, 정치사』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더 밝혀 두어야 할 사정이 있다. 원저인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Mongol Empire*는 미할 비란(Michal Biran)과 김호동이 공동으로 편집하여 2023년 케임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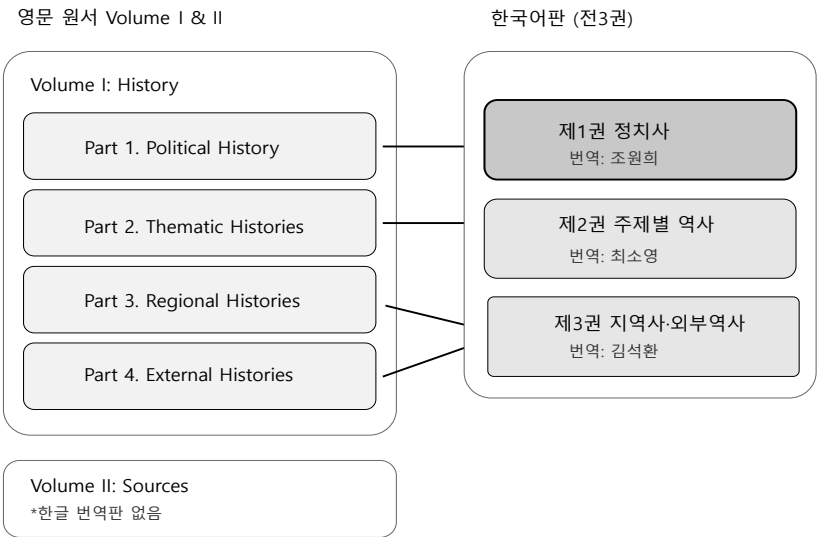
* 연세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지대학 출판부에서 간행되었다.¹ 여기서 Volume I은 History라는 제목 아래 xxi+876면, Volume II는 Sources라는 제목 아래 613면에 이른다. 이 가운데 Volume II는 16개 언어로 작성된 문헌사료를 비롯하여 고고자료와 시각자료에 이르기까지 몽골제국사 연구의 사료 전반을 개관한 부분으로, 성격상 사료 소개에 가깝다. 따라서 원서에서 한국어로 옮겨진 것은 Volume I History이다. Volume II 사료편은 서명과 판본, 데이터베이스 명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이러한 항목은 원어 표기 자체가 곧 정보이다. 이를 옮기지 않은 것은 그 학술적 가치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번역이 더할 수 있는 몫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Volume I History는 다시 네 개의 부(Part)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Political History는 칭기스 칸의 등장에서 각 울루스의 전개에 이르는 정치사를 시대순으로 서술하고, 제2부 Thematic Histories는 통치제도와 군사, 경제, 종교, 문화 교류 등을 주제별로 다룬다. 제3부 Views from the Edges: Regional Histories는 몽골의 지배를 받았던 여러 지역의 시각에서 제국을 조망하며, 제4부 External Histories는 몽골에 복속되지 않은 지역과의 관계를 다룬다. 한국어판은 이 가운데 제1부와 제2부를 각각 한 권으로 옮기고 제3부와 제4부를 한 권으로 묶어 모두 세 권으로 간행하였다. 『제2권, 주제별 역사』는 최소영이, 『제3권, 지역사·외부 역사』는 김석환이 각각 옮겼다. 이상의 대응 관계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본 서평에서는 이러한 대응 관계를 따라 각 권을 차례로 살펴보되, 서평자가 담당한 제1권은 장별로, 나머지 두 권은 편성 특징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이어서 영문 원서에 대한 기존 서평들의 논의를 소개하고, 전체 구성에 관한 서평자의 소견을 밝힌 뒤, 끝으로 몽골 제국사 연구에 관한 약간의 소회를 덧붙이고자 한다.

1 Michal Biran and Hodong Kim eds. (2023),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Mongol Empire*, Vol. I: History; Vol. II: Sourc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그림 1]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Mongol Empire 한글번역본 구분

2. 각 권의 구성과 내용

먼저 『제1권, 정치사』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제1권의 첫머리에는 두 편집자가 함께 쓴 서문이 실려 있다. 여기에서 편집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몽골 제국을 개별 지역이나 왕조의 역사로 분할

[표 1] 제1권의 구성

구분	표제	집필자
서문	서문	미할 비란, 김호동
제1장	칭기스 칸의 등장과 통일 제국, 1206~1260년	루스 던넬
제2장	대칸의 제국: 대원 울루스, 1260~1368년	크리스토퍼 애트우드
제3장	홀레구 울루스, 1260~1335년	스테phen 카몰라, 데이비드 모건
제4장	금장 호르드, 1260~1502년	마리 파브로, 로만 포체카예프
제5장	몽골 중앙아시아: 차가다이와 우구데이의 후손들, 1260~1370년	미할 비란

하지 않고 유라시아 전체의 맥락 속에서 하나의 대상으로 다루겠다는 방법론적 선언이다. 종래의 연구가 각 지역 왕조사의 틀 안에서 몽골을 서술한 탓에 제국의 몽골적 성격이 오히려 시야에서 사라졌다는 것이 편집자들의 진단이며, 그 대안으로 토머스 울슨이 개척한 전체론적 패러다임을 출발점으로 삼아 몽골인과 그들의 유목 문화를 중심에 놓겠다고 밝힌다.²

이후 제1권은 통일 제국 시기를 한 장으로 다룬 뒤 네 울루스를 각각 한 장씩 배치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몽골 제국사를 중국사나 이란사의 일부로 나누어 서술해 온 종래의 관행과 구별되는 편집 방침이 장의 편성에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 하겠다.

제1장은 루스 W. 던벨이 집필한 통일 제국의 역사로, 칭기스 칸의 등장에서 1260년 몽케의 사후까지를 다룬다. 주목할 만한 것은 창업과 팽창의 과정을 다루면서도 과장이나 영웅화의 어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저자는 서두에서 몽골 제국의 성립을 필연적이거나 예외적인 현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요와 서하, 금, 카라 키타이로 이어지는 내륙 아시아 국가들의 계보 속에 위치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몽골 고원의 통일과 이후의 대외 팽창 과정을 서술하며, 세계 정복의 사명 역시 칭기스 칸 개인의 구상이라기보다 우구데이 치세를 거치면서 점차 이념으로 정립된 것으로 설명한다. 또한 시대에 따른 몽골 제국의 변화를 함께 강조한다. 이처럼 최신의 연구 성과를 폭넓게 반영하면서도 시종 절제된 서술을 유지하고 있어, 몽골 제국사를 처음 접하는 독자에게 권할 만하다.

제2장은 크리스토퍼 P. 애트우드(Christopher P. Atwood)가 집필한 대원 울루스의 역사로, 1260년 쿠빌라이의 즉위에서 1368년 수도 대도(大都) 함락에 이르는 한 세기를 다룬다. 케임브리지 역사 시리즈라는 이름에서 연구 성과를 두루 반영한 균형 잡힌 개관을 기대한 독자라면, 이 장은 다소 뜻밖으로 느껴질 것이다. 애트우드는 몽골의 중국 지배를 포괄적으로 다루기보다 원대의 재정, 생태 환

2 이에 대한 더 자세한 한글 논의는 김호동(2017), 「最近 30年(1986-2017) 몽골帝國史 研究: 省察과 提言」, 『중앙아시아연구』 22(2) 참고.

경, 지배층 구성의 변화, 정통성 담론 등 몇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였다. 연도별 화폐 발행량과 조운 곡물량의 수치가 서술 전체에 걸쳐 되풀이하여 제시되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그러나 재정과 물자의 흐름을 통해 원 제국의 성쇠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

제3장은 스테판 카몰라와 데이비드 O. 모건이 공동으로 집필한 홀레구 울루스의 역사로, 1260년 홀레구의 자립에서 1335년 아부 사이드의 사후까지를 다룬다. 두 집필자의 역할 분담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서술 전반에는 오랫동안 몽골 제국의 입문서로 읽혀 온 『몽골족의 역사』로 널리 알려진 모건 특유의 위트 있는 문체가 뚜렷하게 살아 있다.³ 일칸이라는 명칭의 유래를 검토하는 서두부터 사료 비판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전개되고, 곳곳에서 특유의 재치가 드러난다. 몽골 지배가 이란에 남긴 피해를 둘러싼 논쟁을 정리하는 대목에서는 기존의 유명한 증언들을 과감히 물리치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데, 독자의 입장에서는 논증의 절제와 서술의 흥미가 함께 들어난다.

제4장은 마리 파브로와 로만 유 포체카예프가 공동으로 집필한 금장 호르드의 역사로, 1260년경부터 1502년까지를 다룬다. 이 장의 논지는 서론과 결론에 집중되어 있다. 저자들은 소련 학계의 이른바 타타르의 명예라는 틀을 명백하게 반박하며, 주치 울루스가 생태 환경에 맞추어 통치 방식을 조정해 나간 능동적 정치체였음을, 나아가 몽골 제국의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었음을 강조한다. 서론과 결론 사이의 본문은 긴 시기와 넓은 지역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만큼 인명과 집단명, 지명과 사건이 매우 조밀하게 이어진다. 루스 공국은 물론 맘룩, 비잔틴, 제노바, 베네치아에 이르는 대외 관계까지 시야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한국 학계에서 이 지역에 대한 연구가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읽어 나가기가 수월한 장

3 원서는 David Morgan (2007), *The Mongols*, 2nd ed., Blackwell. 한글 번역본은 데이비드 O. 모건 저, 권용철 역(2012), 『몽골족의 역사: 몽골 초원에서 중국, 중동, 러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모노그래프.

은 아니겠지만, 바로 그런 이유에서 소개의 필요성이 가장 큰 장이기도 하다.

제5장은 이 책의 공동 편집자인 미할 비란이 집필한 몽골 중앙아시아의 역사로, 차가다이와 우구테이 두 올루스를 함께 다룬다. 이 장은 저자의 전작인 *The Empire of the Qara Khitai in Eurasian History*의 연장선 위에 놓여 있다는 인상을 준다.⁴ 현지 사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페르시아어와 한문, 아랍어 기록은 물론 화폐와 문서 자료까지 널리 동원하여 윤곽을 재구성하는 방식이 그러하며, 정치사에서 제도와 경제를 거쳐 문화와 종교로 이어지는 구성 또한 그러하다. 낯선 인명과 지명, 사건에 묻히기 쉬운 것은 앞의 장과 마찬가지로, 주제 의식은 조금 더 뚜렷하다. 저자는 이 올루스가 흔히 몽골 정치체 가운데 패배자로 간주되어 왔다는 관점을 반박하면서도, 새로운 사료의 출현에 따라 그에 대한 평가 또한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 동시에, 이곳이 19세기까지 이어진 중앙아시아의 정통성 관념과 정치 문화를 뿌리내리게 하였고 티무르 조와 무굴 조의 발원지가 되었음을 강조한다.

제2권은 『주제별 역사』라는 제목하에, 다음의 표 2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2] 제2권의 구성

구분	표제	집필자
제1장	몽골의 제국적 제도	김호동
제2장	제국의 이념	토머스 올슨
제3장	군사 체제	티모시 메이
제4장	경제 교류: 몽골 유라시아의 화폐, 시장, 세금	구로다 아키노부
제5장	종교의 교류	요한 엘버스록
제6장	과학의 교류	모리스 로사비, 로버트 모리슨
제7장	예술의 교류	로잔 프라즈니악
제8장	몽골 정복 시기의 기후와 환경	니콜라 디 코스모
제9장	몽골 지배하의 여성과 젠더	베티 버지, 앤 브로드브리지

4 Michal Biran (2005), *The Empire of the Qara Khitai in Eurasian History: Between China and the Islamic Wor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제2권 『주제별 역사』는 서론에서 편집자들이 표방한 방침, 곧 몽골인과 그들의 유목 문화를 서술의 중심에 놓고 제국을 유라시아 전체의 맥락에서 통합적으로 다루겠다는 원칙이 가장 뚜렷하게 구현된 부분이다. 이는 우선 편성의 외형에서 드러난다. 제3장 「군사 체제」는 통합 제국 시기 몽골의 군제를 먼저 서술한 뒤 일칸국과 차가다이 울루스, 주치 울루스, 원 제국을 차례로 다루고, 기후와 환경을 다룬 제8장 「몽골 정복 시기의 기후와 환경」은 몽골에서 북중국과 만주를 거쳐 건조 지대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및 동유럽으로 이동하며, 여성과 젠더를 다룬 제9장 「몽골 지배하의 여성과 젠더」 역시 서부 칸국들과 일칸국, 주치 가문, 차가다이 가문, 중국을 나란히 배치한다. 어느 한 지역을 중심에 두지 않고 각 울루스를 병렬하는 이러한 구성은 소제목의 차원에서부터 편집 방침이 관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그 방향에 동의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서술 역량을 갖춘 집필진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특히 제9장은 각각 이 주제를 다루어 온 베틴 버지와 앤 브로드브리지의 함께 집필함으로써 두 사람이 축적한 연구가 하나의 서술로 결합된 사례이다.

물론 이는 소제목의 외형에서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이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김호동이 집필한 제1장 「몽골의 제국적 제도」이다. 울루스와 오르도, 천호와 탐마와 케식, 다루가치와 자르구치, 야를릭과 우게, 그리고 역참에 이르기까지, 이 장은 제국 전역에서 작동한 통치의 기제를 다루면서 그 배후에 놓인 몽골적 공통성을 강조한다. 즉 각 지역을 통치하기 위하여 현지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연구에서 간과되어 온 몽골적 특징의 지속과 지역을 넘어서는 공통성에 서술의 무게를 둔 것이다. 저자는 이를 ‘제국적 제도’(imperial institutions)라는 용어로 포괄한다. 한국의 몽골 제국사 연구자들에게 이 용어는 낯설지 않겠으나, 그 외의 독자들에게는 일반 명사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저자가 오랫동안 다듬어 온 개념이며, 이 장의 서술 전체를 지탱하는 틀이기도 하다.⁵

제2장 「제국의 이념」의 집필자인 토머스 올슨은 편집자들이 서론에서 이 책의 방법론적 출발점으로 명시한 인물이다. 일찍이 다양한 언어를 바탕으로 일국사의 시각을 넘은 저작을 남긴 올슨에 대해서 현재 몽골 연구자들은 모두 그에게 빚을 지고 있으며, 저자가 쌓아 온 연구의 무게감이 느껴진다. 올슨은 이 글이 자신의 이전 저작들에 부분적으로 근거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 1991년부터 2009년까지 발표된 이르는 다섯 편의 저작이 제시되어 있다. 요컨대 이 장은 올슨이 평생에 걸친 연구를 압축한 결과물이다. 이 장이 다루는 것은 영원한 하늘의 힘과 카안의 행운이라는 두 구절로 압축되는 몽골의 정통성 이념이다. 각 올루스가 현지에 적응하고 통치자가 개종한 뒤에도, 나아가 제국이 해체된 뒤에도 이 이념이 현지의 어휘로 번역되며 지속되었음을 추적한다는 점에서 제1장과 같은 문제의식 위에 서 있다.

경제와 종교, 과학, 예술의 교류를 다룬 제4장에서 제7장까지의 네 장이 나란히 배치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들 주제는 애초에 한 지역에 한정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며, 그러한 주제를 제국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선택 자체가 이른바 전체론적 패러다임이 글로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로다 아키노부가 유라시아 전역의 은 유통을 하나의 국면으로 파악한 제4장이 그 전형이라 하겠으며, 요한 엘버스콕이 집필한 제5장이 종교를 몽골의 통치와 그 결과라는 틀에서 다루고, 모리스 로사비와 로버트 모리슨이 함께 집필한 제6장이 의학과 천문학의 왕래를 제국의 공간과 그 너머로 확장하여 추적하며, 로잔 프라즈니악이 집필한 제7장이 금속 공예와 도자기에서 직물과 회화, 서예에 이르기까지 매체를 가로지르며 서술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마지막으로 제3권은 원서의 Part 3과 Part 4, 그리고 에필로그를 묶어 크게 아래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두 부로 구성되었다.

5 김호동(2013), 「몽골제국의 세계정복과 지배: 거시적 시론」, 『역사학보』 217 참고.

[표 3] 제3권의 구성

제1부 지역사: 가장자리에서 바라본 세계		
구분	표제	집필자
제1장	몽골 제국의 몽골 지역: 중심에서 주변부로	모리스 로사비
제2장	몽골 제국 속의 고려	데이비드 로빈슨
제3장	조지아와 캅카스	로렌초 푸블리치
제4장	몽골과 시베리아	토머스 울슨
제5장	루스 공국	로런스 랭어
제2부 외부 역사: 몽골과 정복되지 않은 지역과의 관계		
구분	표제	집필자
제6장	몽골과 유럽	니콜라 디 코스모
제7장	몽골과 아랍 중동	레우벤 아미타이
제8장	남아시아와 몽골 제국	탄센 센
맺음말	몽골 제국, 유목 문화, 세계사	미할 비란, 김호동

원저의 Part 3는 3권 “제1부 지역사 - 가장자리에서 바라본 세계”로 번역되었으며, 제국에는 편입되었으나 그 가장자리에 위치한 지역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물론 ‘주변’과 ‘중심’이라는 기준이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으며,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제3권 제1부 1장 「몽골 제국의 몽골 지역」으로, 부제인 “중심에서 주변부로”라는 명칭이 잘 들어맞는다. 모리스 로사비가 집필한 이 장은 카라코룸의 건설에서 시작해 대칸위를 둘러싼 분쟁과 원 조정의 통치 노력을 거쳐 제국이 무너진 뒤의 분열에 이르는 과정을 서술한다. 제국의 발상지가 지역사의 한 항목으로, 그것도 주변화의 서사로 배치된 것이다. 제국의 중심지가 주변화되었다는 것이 다소 역설적으로 들릴 수는 있지만 세계사에서 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몽골만의 현상은 아니라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한국 독자가 이 권에서 가장 주목할 장은 데이비드 로빈슨의 제2장 「몽골 제국 속의 고려」가 아닐까 싶다. 이 장은 같은 부에 실린 다른 지역들,

곤 몽골과 조지아·캅카스, 시베리아, 루스 공국을 다룬 장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조지아나 시베리아를 다룬 장들이 한국 독자에게 낯선 지역을 처음 소개하는 기능을 한다면, 고려와 몽골의 관계는 국내에 이미 두터운 연구가 쌓여 있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로빈슨은 서구권 학자로서는 드물게 한국어로 이루어진 원-고려 관계 연구의 성과를 두루 참조하고 있으나, 그것이 국내 연구 성과 모두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고려를 제3권 제2부 외부 역사가 아니라 제1부 지역사에 배치한 편성 자체에 동의하지 않을 여지도 있다. 그러나 바로 그 배치가 이 장에서 눈여겨볼 지점이기도 하다. 저자는 첫 접촉에서 장기전을 거쳐 제국으로의 통합에 이르는 과정을 다루고, 이어 군사와 왕권, 인구 이동과 그 결과, 그리고 유산을 차례로 서술한다. 고려와 원의 관계가 양자 관계의 틀에서 벗어나 유라시아 여러 지역의 사례 가운데 하나로 놓였을 때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가려지는가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한국 독자가 이 장에서 얻을 수 있는 바가 아닐까 싶다.

이후의 세 장은 각기 다른 이유로 읽을 만하다. 로렌초 푸블리치가 집필한 제3장 「조지아와 캅카스」는 몽골 이전의 상황에서 시작해 정복과 협력, 일 칸국 후반기까지를 다루며, 국내에 소개가 가장 적은 지역을 정리해 준다. 제4장 「몽골과 시베리아」는 제2권의 「제국의 이념」과 더불어 토머스 울슨의 유고이다. 삼림 생산물과 원격 통치라는 장의 소재목이 보여 주듯, 이 장은 그가 오래 천착해 온 물품과 교환의 문제를 북방 변경이라는 무대에서 다시 다룬 것이며, 제2권의 「제국 이념」장과 더불어 그의 마지막 성과에 해당한다. 로런스 랭어의 제5장 「루스 공국」은 침공과 공물, 14세기와 15세기의 변화를 거쳐 몽골 지배가 루스에 남긴 것을 묻는데, 제1권에서 조치 울루스를 능동적 정치체로 재평가한 서술과 나란히 읽으면 같은 대상이 지배자의 자리와 피지배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달리 서술되는지가 드러난다.

3권의 제2부를 구성하는 부분은 정복되지 않은 지역과의 관계를 다루

겠다는 기획으로, 니콜라 디 코스모의 유럽, 레우벤 아미타이의 아랍 중동, 탄셴 셴의 남아시아 세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장은 군사적 충돌에서 시작해 외교와 교역, 종교와 문화의 접촉으로 서술을 옮겨 가며, 정복의 성패가 아니라 접촉의 양상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주제별 역사를 다룬 제2권의 방법론과 연속된다. 세 장 모두 분량이 크지 않고 논지도 뚜렷하여, 몽골과 접했으되 그 지배 아래 들어가지 않은 지역들이 제국을 어떻게 겪었는지 가늠하려는 독자에게 알맞은 출발점이 된다.

3. 몇 가지 소견

이상이 서평자가 나름대로 정리한 이 책의 내용이다. 세 권에 이르는 분량을 다루다 보니 소개가 다소 길어졌다. 앞서 밝힌 대로 이제 세 가지를 덧붙이며 글을 맺고자 한다.

먼저 영문 원서에 대한 기존 서평들의 논의이다. 원서가 간행된 2023년과 한국어판이 나온 2026년 사이에는 3년의 간격이 있으며, 그 사이에 원서에 대한 상세한 서평이 최소 세 편 발표되었다. 출판의 의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견해가 일치하므로 그 내용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겠으나, 세 서평이 지적한 아쉬움만큼은 함께 소개해 둘 만하다고 생각한다. 마르톤 베르(Márton Vér)와 에이런 셰아(Eiren L. Shea)는 원서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최신 연구 성과를 꼼꼼히 정리하고 있어, 각 주제의 최근 동향을 더 살피려는 독자에게 일독을 권한다.⁶ 두 서평자가 지적하듯 이는 기획에서 간행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데서 비롯된,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사정이기도

6 Eiren L. Shea (2025),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Mongol Empire ed. by Michal Biran and Hodong Kim(review)”, *Journal of Song-Yuan Studies* 54; Márton Vér (2025),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Mongol Empire and the State of the Field: A Review Article”, *Acta Orientalia Academiae Scientiarum Hungaricae* 78(2).

하다. 마흔 명이 넘는 집필진의 원고가 완성되는 시점이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었던 만큼, 각 장이 최신의 성과를 온전히 담기는 어려웠던 셈이다. 베르와 세아의 서평은 그 공백을 상당 부분 메워 준다. 한편 한국 독자와 한국 연구자의 입장에서 남는 아쉬움에 대해서는 이강한의 서평이 짚어 준 바가 있다.⁷ 고려의 독자성과 주체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몽골 지배가 남긴 유산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이 또한 함께 읽어 볼 것을 권한다.

다음으로 전체 구성에 관하여 두 가지를 짚어 두고자 한다. 하나는 원저의 에필로그가 한국어판 제3권에 실려 있다는 점이다. 서론이 제1권에, 에필로그가 제3권에 놓이면서 편집자들의 논지가 한국어판의 양 끝으로 갈라진 셈이다. 편집자들은 칭기스 칸과 그 후손들이 만들어 낸 세계를 종래 널리 쓰여 온 팩스 몽골리카(Pax Mongolica, 몽골의 평화) 대신 칭기스제의 교환(Chinggisid Exchange)이라는 용어로 규정한다. 편집자들이 밝히듯 이는 기존의 관념과 달리 두 가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는 몽골 제국이 만든 세계가 반드시 평온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며, 둘째는 교류의 조건이 아니라 그것을 주도한 주체가 몽골이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제국이 유라시아의 종교와 경제, 제도와 지정학에 남긴 변화를 하나의 개념 아래 묶어 제시하는 곳이 마지막 권이므로, 제1권만을 읽은 독자는 편집 방침의 출발점은 접하되 그 귀결은 접하지 못한다. 세 권을 한 기획의 세 부분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른 하나는 편집자들이 표방한 방침과 개별 서술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간극이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앞에서 각 권을 살펴보며 되풀이하여 확인한 바이기도 하다. 다만 그 간극이 나타나는 층위는 권마다 조금씩 달랐다. 제1권에서는 집필자 개인의 문제의식과 지역 연구의 관행이라는 층위에서 나

7 Kang Hahn Lee (2025), "Review Article: Monumental Achievements for Mongol Empire Studies: Celebration and Analysis",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38(2).

타났고, 제2권에서는 편성과 서술 양쪽에서 방침이 비교적 일관되게 관철된 반면, 제3권에서는 무엇을 다루고 무엇을 다루지 않을 것인가라는 포괄 범위의 층위에서 나타났다. 이를 편집상의 결함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십여 개국에서 온 40여 명이 참여한 공동 저작에서 이만한 편차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며, 편집자들 스스로 서론에서 여러 관점의 병존을 미리 밝혀 두기도 하였다. 다만 그 복잡성이 어디까지 의도된 것이고 어디부터가 대규모 공동 저작이 안고 있는 구조적 조건인지는, 여전히 독자가 판단할 몫으로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몽골 제국사 연구에 관하여 한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편집자들이 서론에서 지적하였듯이, 이 분야가 오랫동안 넘어서야 했던 것은 제국을 중국사와 이란사, 러시아사로 나누어 읽어 온 분절적 시각이었다. 이를 대신하여 몽골의 시각에서 제국을 하나로 파악하고, 몽골인을 정주 문명의 파괴자가 아니라 교류를 주도한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이 분야가 세워 온 과제였다고 하겠다. 이 책은 그 과제를 상당한 정도로 달성하였다. 다만 그러한 성취에는 대가도 따르는 듯하다. 몽골의 시각을 강조하다 보면 몽골 제국을 세계사의 예외로, 곧 다른 사례와 견주기 어려운 특수한 현상으로 그려지게 되는 경향이 생긴다. 지난 수십 년의 연구가 여러 언어의 자료를 가로질러 제국 내부를 하나로 꿰는 데 성공하였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몽골 제국을 다른 제국들과 나란히 놓는 비교의 작업이 아닐까 한다. 가령 국가 형성(state formation)과 제국의 통치 방식, 그리고 종족이라는 범주 자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모두 몽골 제국에 국한되지 않는 물음이며, 이러한 주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함께 다룰 때 비로소 비교가 가능해진다.⁸ 몽골이 특수하였다는 결론만으로 논의를 닫는 것은 그 특

8 몽골 제국에 대한 논의는 아니지만 준가르 제국의 특징을 이와 관점으로 분석한 Hosung Shim (2021), "The State Formation of the Zunghar Principality: A Political History of the Last Centralized State of the Eurasian Steppe", PhD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를 참고할 수 있다.

수성이 무엇에 견주어 특수한지를 묻지 않는 셈이 되므로, 오히려 이 분야를 다시 고립시킬 위험이 있다. 이 책이 마련한 토대 위에서 그러한 방향의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호동(2013), 「몽골제국의 세계정복과 지배: 거시적 시론」, 『역사학보』 217.
- 김호동(2017), 「最近 30年(1986~2017) 몽골帝國史 研究: 省察과 提言」, 『중앙아시아연구』 22(2).
- 데이비드 O. 모건 저, 권용철 역(2012), 『몽골족의 역사: 몽골 초원에서 중국, 중동, 러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모노그래프.
- Biran, Michal (2005), *The Empire of the Qara Khitai in Eurasian History: Between China and the Islamic Wor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iran, Michal and Hodong Kim eds. (2023),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Mongol Empire*, 2 vo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e, Kang Hahn (2025), "Monumental Achievements for Mongol Empire Studies: Celebration and Analysis",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38(2).
- Morgan, David (2007), *The Mongols*, 2nd ed., Blackwell.
- Shea, Eiren L. (2025),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Mongol Empire ed. by Michal Biran and Hodong Kim(review)", *Journal of Song-Yuan Studies* 54.
- Shim, Hosung (2021), "The State Formation of the Zunghar Principality: A Political History of the Last Centralized State of the Eurasian Steppe", PhD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 Vér, Márton (2025),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Mongol Empire and the State of the Field: A Review Article", *Acta Orientalia Academiae Scientiarum Hungaricae* 78(2).